역량파악

내가 잘하는게 뭔가? -> 코딩

모비에스 컨퍼런스에 제출 , 병섭님졸업논문

2019년 CO2 배출 자료가 2020년 3월에 나옴

CO2 배출을 제대로 산정했는지 1차 검증 한국표준협회 2차 검증 환경부에서 검증함 그럼 또 시간이 지나감, 검증 작업이 마치는 데까지 3년이 걸림 실시간성이 매우 부족함

대기업에서는 설비마다 센서가 달려서 CO2를 측정함. 그렇지만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시스템 구축이 힘들다. 19년 측정치를 파악해야 20년 목표를 검증할 수 있다. 대기업에서는 실시간성을 가지지만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무결성 검증까지. 분산 원장 실시간으로 동기화 개념만 녹이는 아웃풋

개인이 탄소배출권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함.

해당 년도에 예로 들어 상반기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그 나머지 하반기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예측.